



[시장동향] 英, 인력난 심화로 식음료 사재기 재확산 우려

- 총리에게 임시비자 발급 재촉구...연말 심각한 사재기 현상 발생 경고



영국에서 대형트럭(HGV) 운전자 부족으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되며 연말 연휴기간 심각한 패닉바잉이 재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가 운전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비자 발급을 보류함에 따라, Dairy UK를 비롯한 낙농 및 식음료업계는 총리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장기화와 브렉시트에 이어 운전자 부족으로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임시비자 발급을 촉구 하고 나섰다.

업계 측은 현재 유통 문제로 유제품, 육류 등 많은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동안 봉쇄령 당시보다 더 심각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년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3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6개월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물류 공급망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출처 : news.yahoo.com, 9월 23일 >

[지속가능] 스웨덴, 해조류 사료보충제 생산 확대 추진

- 100g 급여로 메탄가스 80% 감축 효과...2022년 세계 최대 규모 공장 설립 목표



해조류 사료보충제가 젖소의 메탄가스 배출 저감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스웨덴에서는 해조류 사료보충제 생산 확대를 위한 대규모 공장이 설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조류의 일종인 바다고리풀을 활용해 만든 사료보충제를 젖소에게 하루 100g씩 급여할 경우 장내에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특정 효소를 억제시키며 메탄가스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주요 원유생산국에서 이를 활용한 메탄가스 감축 연구가 한창이다.

이에, 스웨덴의 한 스타트업은 해조류 사료보충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2022년을 목표로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을 설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장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에너지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스웨덴은 물론 해외 시장으로 판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출처 : euronews.com, 9월 24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